2월 16일 강의

부자 청년

핵심 구절: "다시 말하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19:24

선택한 성구:
마태복음 19:16-30

많은 재산을 가진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유업으로 받으리이까?" (마가복음 10:17; 마태복음 19:20; 누가복음 18:18). 두 사람이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예수님은 "네가 온전(헬라어: 완전)해지려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9:21-22; 마가복음 10:21-22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헬라어: 힘들다)." 그런 다음 핵심 구절에 나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은 "크게 놀라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9:23-26

이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대신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거기 있느니라"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19-21). 또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나서 그 씨앗을 질식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상징하며 "이생의 걱정과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질식시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22

사도 바울은 "그러나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욕망에 사로잡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라고 충고합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갈망하여 참된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며 많은 슬픔으로 스스로를 찔렀습니다." 디모데전서 6:9-10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겸손과 복종으로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한 몇몇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들 중 가장 우두머리였지만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했으며, "부자"로 묘사됩니다. (누가복음 19:2-9). "부자"로 묘사되는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여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마태복음 27:57-60). 니고데모는 요셉과 함께 예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매우 많은 양의 향료를 가져왔으므로 그도 부자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39-42

그러나 부자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하신 분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 첫 번째이자 으뜸이신 그분은 "부자이셨지만" 신음하는 가난한 피조물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하늘( )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기꺼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때가 이르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9; 요한복음 3:13; 6:38-51; 디모데전서 2:5-6